

1.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김화숙, 《경기도 공익웹진》, 2025-04-11

도종환 시인은 시 '화인'에서 4월을 이렇게 말한다. “이제 4월은 내게 옛날의 4월이 아니다.” 이제 바다도 지난날의 바다가 아니란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때문이다. 그게 어디 시인 한 사람만의 고백일까. 11년 전 4월 그날 이후 삶이 바뀌었노라, 고백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 4.16 합창단원이자 활동가 파주 시민 김서원(도로시) 님과의 일문일답이다.

자기소개와 근황 인사 부탁한다

파주에 있는 여성 위기 청소년 쉼터에서 밥하는 일을 한다. 24시간 생활시설인데 활동가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도록 맛있는 밥을 해 주는 게 내 일이다. 청소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게 내 즐거움이다. 예산에 맞게 좋은 재료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 매주 월요일 퇴근 후 안산으로 4.16 합창단 연습하러 가고,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한다.

윤석열 파면 결정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4.16가족들이 떠올랐다. 4.16 합창단에서 노래한 건 3년이지만 세월호 가족들 곁에 있는 건 11년째다. 세월호 참사로 나는 정치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 정치에 무관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투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유연으로 남기고 싶을 정도다.

사람들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자기 인생을 나누는 경우를 종종 본다. 내 삶도 그렇다. 그 날이 나를 깨웠다.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며, 다른 삶을 살게 해줬다.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온 농민들 얘기 중에 그곳에 세월호 아이들이 와 있는 거란 말이 있었다. 맞다. 나도 합창단에서 노래할 때 항상 아이들이 함께 있음을 느낀다.

20140416 참사 당일의 기억은?

애들 키우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아파트 평수랑 좋은 대학 보낼 생각하고 살았다. ‘애들은 왜 나를 따라주지 않나, 남편은 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할까’라며 늘 화가 차 있었다. 노는 날도 놀 줄 모르고 신나는 생각은 죽어도 못 하는 일 중독자였다. 그런데 수학 여행 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갑자기 내 삶이 다 부질없어 보였다.

당일 제일 먼저 찾은 게 우리 애들이었다. 애들이 어디 있지? 아들하고 연락이 돼서, 배고프지,라며 짜장면을 사줬다. 짜장면을 먹이는데 더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애들은 교복 입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 애들은 못 돌아왔잖아. 더 얘기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안 잡혔다.

4.16 활동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있었나?

갈피를 못 잡다가 지역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서명받는 사람들이 있길래 참여하고 그 곁에 있게 됐다. 2015년 들어서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을 한다는 말이 들렸다. ‘아, 그럼 내가 음식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김경환 목사님과 네댓이 안산으로 갔다.

가 보니 안산의 ‘치유 공간 이웃’이었다. 우리는 각각 작은 개다리소반에 밥상을 받았다.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진, 울컥 뜨거운 눈물이 나는 밥상이었다. 가족들에게 차려지는 밥상이라는 생각에 나는 계속 울면서 밥을 먹었다. 이영하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곳은 야전병원”이라고. 투쟁하고 다치고 지치면 잠깐 쉬어 가는 곳이라고. 그게 4.16 활동과의 연결이었다.

봉사자 엄마들이 《금요일엔 돌아오렴》(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창비, 2015)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길래 함께 했다. 혼자서는 엄두를 못 내던 책을 같이 낭독하며 실컷 울었다. 점차 노란 리본을 만든다든가 동네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대에도 섰다.

치유 공간 이웃(이웃): 2014년 9월~2021년 2월까지 안산에 있었던 치유 공간. 정신과 의사 정혜신·심리 기획자 이명수 부부가 제안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이영하 전 대표(50)가 실무를 맡았다. 수많은 활동가와 봉사자들이 4.16 가족들이 안심하고 울고, 편하게 밥 먹고 쉴 수 있게 함께 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책 《밥은 먹었어요?》(이영하, 걷는 사람, 2022)와 영화 <생일>(2019, 이종언 감독)에 이웃 이야기가 더 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생일 모임과 밥 이야기

첫 생일 상차림을 위해 연 계좌에 80만 원이 모였다. 양을 대중 못해 장 보고 나니 딱 만원 남더라. 이 정도로 돈이 든다면 내 카드 굵을 각오까지 했다. 그렇게 준비된 영만이 생일 모임에 단원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50인분이란 음식이 100명 먹고도 남아, 화수 분이라며 싸 주었다.

다음 모임은 다음팀이 단톡방을 열어 준비했다. 별이 된 아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좋아하는 메뉴로 준비했다. 나는 그런 팀을 조직하고 식재료를 연결하고 음식도 만들었다. 수많은 봉사자가 ‘함께하는 이웃’ 밴드에 모여들었다. 저명한 여성들인 ‘십자매회’를 비롯해 신부님, 선교사님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과 봉사로, 매달 40만 원 정도로 생일 모임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겨울에는 가족들을 위해 김장을 했다. 고양 파주 생협과 유기농 식당 네트워크에서 재료를 땀다. 과산 농부님들이 연결됐다. 몇백 포기 배추가 트럭으로 오고, 성당에서 기도하던 할머니들이 나와서 배추를 절이고 소금, 고춧가루, 깨 등을 아낌없이 가져오고, 뒷정리를 도왔다. 가족들께 보내고 쌍용차나 투쟁하는 분들에게도 보내고, 이웃에서 먹을 수 있었다.

단원고 2학년 6반 고(故) 이영만(1998.2.19.~2014.4.16.) 군은 형제 중 막내로 약하게 태어났지만 건 강하게 자라 축구를 좋아하고 5km 마라톤에서 상을 받았다. ‘미소 천사’로 밝고 순한 성격에 엄마와 학교와 친구들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해 우주 공학자를 꿈꾸었다. 2023년 ‘이영만 연극상’이 제정됐다.

4.16 활동 이전에도 음식하기 좋아했나?

나는 4년 1남 중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내 밑에 남동생이 난 후로 “서원이야가 제일 예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셔서 그렇게 알고 컸다. 어깨동무 잡지에서 나는 요리 칼럼을 제일 먼저 읽는 아이였다. 신문도 잡지도 요리 쪽을 1번으로 봤다. 중학교 때 레시피를 보고 낫선 피자를 직접 만들어 봤다. 할라피뇨, 피망 등 없는 건 집에 있는 재료로 대체했다.

엄마가 정육점에서 살이 치렁치렁하게 큰 돼지고기 덩이를 사 온 적이 있는데 내가 신문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돈까스를 만들었다. 소금 후추만 쓰란 법 있냐, 간마늘로도 재고, 양파로,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청양고추 양념으로도 재어 튀겼다. 온 식구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 입 짧은 남동생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 우리 엄마는 늘 내게 고마워했다.

언니들은 나를 “요리 천재”라고 불렀다. 장사하고 늦게 돌아오는 엄마에게 내가 만든 음식으

로 밥상을 차려 드리면 “서원이 때문에 내가 한숨 돌린다”라며 좋아하셨다.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10개 싸던 시절, 내가 만든 반찬 덕에 엄마 수고가 줄어드는 게 좋았다.

참사 이후의 달라진 삶 이야기

돈도 안 벌고 안산과 파주를 오가며 생일상 차리는 일을 한 2년 했다. 아이디어로 생각하던 음식을 다 만들어 봤다. 그러나 절대 나 혼자 한 게 아니란 걸 말하고 싶다. 연대의 힘을 배웠다. 같이 메뉴 짜며 마음을 나눈 유가족들과 십시일반 힘 보태 함께 한 활동가들이 있었다.

그런 중에 나는 이혼했다. 2015년 봄, 불교팀 주방에서는 고기 요리를 할 수 없어서 우리 집으로 장을 봐서 모였다. 남편이 폭발해 소리쳤다. “세월호 참사 안 났으면 어찌 살았겠냐, 죽은 아이들 생일상 차리느라 가족들 밥은 안 차려주냐?” 그는 상을 뒤엎고, 빌려온 큰 팬을 내 쪽으로 던졌다. 남편이 일베처럼 보였다. 그날 나는 온 가족을 모아 놓고 이혼을 선언했다.

살아온 날들을 부정해야 했고 다른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던 때였다. 내 마음은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혼이 정리되는 몇 달간 남편이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내 몸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됐다. 딸이 나서서 이혼 서류를 갖다 줄 정도였다. 그는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18년의 결혼 생활, 연애까지 25년의 관계가 그해 말 허무하게 끝났다.

이혼 후에도 계속 활동가로

내가 저질렀으니 더 절실하게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시국에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매주 있었다. 생일 모임 후에 병커 원 교회 친구들과 토요일에 청계천으로 갔다. 매주 집회 광장에서 뭘 해볼까 궁리하다 주먹밥을 만들어 팔기로 했다. 잘 안 팔리더라. 그래서 그냥 나눠줬더니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가더라. 그 후 뭐든 나눔으로 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 청와대 앞 법외 노조, 비정규직 집회,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노숙 농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토요일 새벽에 밥을 해서 싸우는 분들에게 가서 나누었다.

가진 것 까먹으며 살았다. 고기 안 사 먹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보험 깨고 적금 해지하고 연금 없어지고 전세가 월세로 줄었다. 불만 많던 아들이 생일 모임에 참여해 보고 반항을 끝내더라. 세월호 당시 중2였던 딸도 생일 모임에 다녀간 후 엄마를 이해하더라.

박근혜 탄핵 후 지역에서 소수당 진보당에 입당했다. 4.16 활동할 때 제일 묵묵히 함께한 그분들과 파주에서 4.16과 함께 노래하는 일을 시작했다. 음식 만들던 사람들과 함께 공모사업으로 파주 4.16 합창단을 3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안산 4.16 합창단까지 하게 됐다. 4년 정도 한 ‘동네 부엌 천천히’에서 청소년 시설로 올해 직장을 옮겼다.

그동안 소진되는 느낌은 없었나?

성과 위주의 인간이었는데 왜 없겠냐. 파주 시민 합창단 3년 차 공연을 지역에 있는 5개 팀 연합으로 잘 올린 후였다. 장애인 가족팀이 40여 명이 참여해서 한 100명이 했다. 행복하게 끝나고 손뼉 치고 각계 인사들이 인사하고 있는데, 김서원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다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이 올라왔다. 한 번도 생각 못 한 일이었다. 내 욕심대로 활동한 적 없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많은 일을 많이 정리하고 직장 일과 4.16 합창단만 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빠곳대는 몸도 돌보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4.16 참사 11주기를 맞는 소회는?

11년간 할 만큼 활동하고 나니 속에 화가 많이 풀리고 너그러워졌다. 대규모 음식을 몇 년 하다 보니 나는 음식 전문가가 돼 있었다. 이제 나는 몸도 마음도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성과 위주의 인간이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다. 밥하는 일과 파주랑 안산 4.16 합창단 활동이 날로 재미있다.

그런 중에 작년에 엑스 남편하고 재결합하고 혼인신고도 했다. “당신은 활동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이제 당신한테 은혜 갚게 해 줘.”라는 그의 말에 내 마음이 열린 거다. 밥이나 사나 했더니 그는 점점 밥을 해주고 싶더라. 그는 원하던 삶을 되찾은 셈이다. 가족밖에 모르는 성실한 남자였으니까. 바꿔 말하면 나에게도 완벽주의를 요구하고 자식과 남편만 바라보길 원했더라. 그 집착과 강요와 구속이 내겐 화로 쌓였던 거다.

4.16 참사와 함께 깨졌던 관계가 4.16 활동 덕분에 다시 이어진 거다. 남편은 노년에 내 수발을 잘 들려고 자기 몸 관리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도 이전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나이 든 연인이 되었다. 내가 4.16 합창단 공연하고 늦게 오는 날 그는 세탁기 돌리고, 냉장고 채우고, 맥주 두 캔 먹을 안주 준비해 놓고, 나 데리러 나온다. 돌아보면 이혼은 ‘신의 한 수’였다.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몰랐을 거다.

이후의 계획이나 꿈은?

이 일을 오래 하고 싶다. 이젠 장사하는 곳에서 밥을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소질이 없다. 내 엄마, 아버지에게 밥해줬던 재미, 우리 엄마가 늦게 들어왔을 때 내가 밥 퍼서 김치하고 줘도 “세상에, 서원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는구나.”라며 내 자존감을 키워준 밥이다. 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해 주는 일이 나는 즐겁다. 매일 출근할 때 일하러 가는 마음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러 가는 마음이다.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재우고, 내 밥을 먹고 애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불어 4.16 가족 곁에서 4.16 합창단을 오래 하는 게 꿈이다.

2. 생활밀착형 여성 단체 ‘함께크는여성울림’ 이야기/김화숙, 《경기도 공익웹진》, 2025-05-16

지난 4월 21일 안산에는 아주 특별한 생일잔치가 있었다. 풀뿌리 여성 단체이자 전국에 하나뿐인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좌담회였다. 안산 고잔동의 울림 교육장이 “세상을 향한 큰 울림, 함께 걸어온 10년 이야기” 꽃으로 가득했다. 김혜정(우공) 전 대표와 조창아(짱아) 신임 대표의 육성으로 여성 단체 ‘울림’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부터 부탁한다.

우공: 10년간 울림 활동가이자 2년의 전임 대표 자리를 벗어나서 회원으로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째인 우공이라고 한다. 아직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완전히 활동가의 탈을 벗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음은 자유로운 개인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짱아: 나는 지난 2년간 울림의 이사였다가 올해 대표이사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대표를 맡기 전후로 내란 불법 계엄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덕분에 활동가로 갑자기 성장한 대표라고 소개하겠다.

울림이 뭐지? ‘함께크는여성울림’을 소개해 달라.

우공: 사무실은 안산에 있지만 회원이 다른 지역과 해외에도 있는 전국구 여성 단체다. 일상의 차별과 성 역할에 갇혀 살던 여성들이 모여 떠돌고 설치고 자유롭게 말하는 안전한 공간이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작은 배움터다. 이름 그대로 나만 잘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고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다.

짱아: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13개의 회원 소모임이 활발하다. 성 평등 가치를 담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인권 관련 현안, 세월호 참사 등 안산의 민주시민 단체와 연대 활동도 한다. 12.3 계엄의 밤 이후 123일 동안 ‘비상행동’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다. 올해 4월 울림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펴내고 좌담회를 비롯한 기념사업을 진행했다.

10년 전 ‘함께크는여성울림’의 창립 과정이 궁금하다.

우공: 여성 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 등 여성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공부를 했다. 지인들과 발기인을 모으고 돈을 모아 2015년 2월에 안산에서 74명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4월에 법인설립을 완료했다. 돈이 없어서 페인트칠, 벽지 등 실내장식을 회원들이 손으로 다 했다. 목재로 된 글자 하나까지 발로 뛰어 찾아서 ‘함께크는여성울림’ 현판을 달았다.

당시 안산에 여성노동자회와 YWCA 두 여성 단체가 있었다. 차별점이 뭔가?

우공: 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이 중심에 있고 YWCA는 기독교적 이념에 기초해 평화운동, 청년운동을 함께하는 좀 더 포괄적인 여성공익 운동 단체다. 각각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생활 중심형 여성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여성 취업률이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노동과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도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적 공간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공적 활동과 연결되는 통로가 필요했다. 한마디로 울림은 일상에 밀착된 여성운동 단체다.

지금은 회원이 얼마나 되나? 많이 가입하고 또 탈퇴했을 것 같은데.

우공: 현재 200명쯤 된다. 한 해 보통 30명씩은 들어왔지만 나가는 사람도 많아 생각보다 증가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초창기에 “도와주세요”, 읍소해서 100명 채워준 이들이 시간이 가면서 떠나갔다. 사돈의 팔촌 회원들 빼면 한 50명으로 시작해 10주년에 200명까지 왔다. 상당수 회원이 기존 회원의 소개로 오니, 울림은 회원들이 함께 키운 단체가 맞다.

두 분 삶에 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울림의 장점을 자랑해 달라.

짱아: 가장 든든하고 신뢰하는 여성들의 집합체다. 울림을 빼면 나를 설명할 수 없을 거 같다. 울림 활동 7년을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 ‘성 평등한 민주 사회 실현을 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생활 중심형 여성운동’이라는 모토 그대로였다. “울림이 뭐 하는 곳인 줄도 모르고 좋은 사람 따라왔다가 배우게 되고 실천으로 연결됐다.” 이런 고백 많이 들었다. 나도

그랬다.

13개 회원 소모임을 자랑하고 싶다. 페미니즘 모임, 4.16세월호 참사 기억 모임, 걷기 인증 모임, 산행 모임, 글쓰기 및 합평 모임, 영어 모임, 그림 모임, 우쿨렐레 모임, 환경모임 등 여성의 관심사만큼이나 다양하다. 홈페이지 제작 모임, 코딩 모임 등 IT 관련 교육도 늘고 있다. 정치 성향 상관없이 관심 분야로 모여 놀며 배우며 활동한다. 소모임에서 어울려 회의나 여성 대회 등 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연대 집회로도 연결된다. 나도 처음 울림에 발을 들인 건 활동가들의 인성이 좋아 보여서였다. 글쓰기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다가 ‘별을 품은 사람들’에서 세월호 기억 활동을 하며 내적 외적으로 성장을 경험했다.

우공: 개성 넘치고 재능 있고 멋진 여성들이 울림의 자랑이다. 울림은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는 만남의 장이자 사랑방이다. 사람이 연결되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와 다양한 정보가 오가고 활동을 만들어내고 참여와 연대도 이루어진다. 아쉬움은 내가 이슈 파이팅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다. 연대체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울림도 나도 더 확장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 이제 새 대표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각자 여성운동에 몸을 담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우공: 나는 좀 늦게 발을 들인 편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세 딸 중 둘째로 남자가 없는 집에서 자라 그런지 여자라고 차별받은 경험은 많지 않았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몸담았지만, 당시 여성운동에는 별 매력을 못 느껴 안타깝게도 페미니즘 세계를 모르고 20대를 지나쳤다. 그런데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가부장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되면서 성차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다. 아이 낳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고 무의미해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더라.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고 1년간 봉사했다. 경력 중단 여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컸고, 여성들과 상담하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과 가정폭력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 야, 여성에게는 취업보다 폭력 문제가 더 심각하구나, 깨닫고 관련 공부를 하게 됐다. 30대 후반 본격적으로 여성운동 판에 들어간 게 안양여성의전화였다. 젠더 폭력에 대응하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성차별 세상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사무국 일을 주로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산에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결국 뜻 맞는 활동가들과 울림을 만들 수 있었다.

짱아: 2018년에 김혜정 사무국장을 만나게 되면서 울림에 가입했지만, 별 활동은 없었다. 순천에서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글쓰기 소모임을 만들어서 울림 활동가들과 더 가까워졌다. 울림 3년 차에 이혼했다. 이혼 후, 울림 회원들이 자주 찾아와, 걷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가끔 술도 마시며 '함께'라는 걸 실감했다. 그러다 소모임 '별을 품은 사람들'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피하던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마주하게 됐다. 그때까진 내 슬픔이 가장 컸는데 생각의 전환이 오더라. 외로워서 슬프고 남편이 떠나서 슬프고, 그런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지더라. 그러니까 내 슬픔에 매몰됐을 땐 해결되지 않더니 다른 아픔에 동참하니까 내 슬픔이 작아지고 연대가 주는 위로가 아주 크게 다가왔다. 도망치지 않고 슬픔의 한가운데 서는 법을 배운 거 같다. 그러다 울림 이사 제안도 수락했고 대표이사 제의도 수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니 그렇다.

계엄 사태 한 달쯤 지났을 때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다. 시국이 내가 빨리 대답하게 했다. 우리 사회 어떡하지, 울림 어떡하지, 모두 내 문제로 다가왔다. 새로 시작한 생업을 하며 대표이사를 맡고 매주 광화문 집회에도 나갔다. 그때 절박하게 느꼈다. 정치와 내 삶이 따로 있지 않구나. 내 삶을 뒤흔드는 게 정치구나, 내란 시기에 날마다 그런 각성을 했다. 내가 실천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체 이 선택이 좌초되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할게 없다 생각하고 내버려뒀구나, 부끄러웠다.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울림의 상황이 다 하나로 연결됐다.

울림의 신임 대표로서 취임 3개월의 소회가 궁금하다.

장아: 2월 6일에 취임했지만, 작년 12월에 이미 대표이사 투표가 있었고 내 마음의 결정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1월 중순에 했던 걸로 기억한다.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가능했다. 그때 활동가들이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준비하고 쓰고 있었다. 그 작업을 도우면서 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조심스레 문제를 제기했다. 울림 10년 역사를 네 명의 활동가가 책으로 엮기엔 역부족이라 생각했다. 그만큼 부담이 컸다. 그러나 자료집 초고를 읽다 보니 지난 10년의 사람들과 역사를 다시 보게 됐다. 그 수고 덕에 내가 안정적으로 5대 대표로 이어받을 수 있었다.

책임을 맡고 보니 전에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여서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연대 활동에 대표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 풀이 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나갈 사람이 적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시의적절하게 매듭 할 거 매듭짓고 자료 정리 잘해준 활동가들이 새삼 고맙더라. 며칠 전 꿈을 꿀 정도였다. 내가 앞으로 2년간 일을 하고도 흠어놓고 쓸러가게 만들지 않을지 걱정돼서였다. 생업과 울림 활동을 병행하며 일상을 살아내려니 마음 관리도 잘하려 하고 있다.

파면 전전주에 한 회원이 처음으로 집회 참여를 한 후 들려준 소감이 생각난다. 원래 “저는 광장 그런 데는 안 나가요.”라던 분인데 내가 지나는 말로 같이 가자 그랬다. 울림은 누구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분이 탄핵 광장에 다녀온 후엔 “민주주의를 바라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함께한 시민들의 모습에 감동했다. 역사의 현장에 있게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 이게 함께하는 재미다.

창립 멤버로서 전임 대표직을 마치는 소감은 어떤가?

우공: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성 평등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울림도 마찬가지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책임을 내려놓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었다. 내가 물러나도 계속 함께 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임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회원들이 있다. 또 새 대표가 엄청 적극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언젠가 넘어야 하고 이제는 넘어가는 걸 시도해 봐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적기였다. 내 선택이 옳았고 울림도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창립 위원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해 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로 대표 이전이 되고 임원진들이 바뀌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10년을 탈 없이 잘 왔다. “울림이 있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보람을 느낀다. 10주년 앞두고 몇 차례 비전 워크숍을 하며 우리 단

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임원들이 많아진 걸 보았다. 이사진 중심으로 역할 배분도 되고 공동 운영 마인드도 생겼다. 조창아 대표가 사람을 포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고 있는 게 느껴진다.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10년 울림의 비전과 과제가 있다면?

짱아: 탄핵 광장에 나온 2030 여성들에게서 감동과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분들과 연대하는 페미니스트 단체 울림으로 계속 성장하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다고 가다 보면 사람들을 놓칠 수 있더라. 오히려 사람들과 하루하루 함께 걷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랬듯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부하고 글 쓰고 하는 그 자체가 울림의 존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의 도전과 과제는 교육과 홍보, 재정 확충, 세대 간 연대 등이 있다. 운영진과 회원들의 페미니스트 역량 강화도 과제겠다. 현재로선 울림 자체가 내 꿈이다. 울림이 있다는 자체가 내 기쁨이다.

:

3. 마음 비우지 마세요, 제발~/ 김화숙,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2016년 연말에 생애 처음으로 가출했다. 암수술 후 세 번째 새해를 앞두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였다. “이게 나라냐?” 촛불이 타오를 때였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다 보니 촛불이 내 삶에 제대로 옮겨붙었다. “이게 결혼이냐?”, “이게 길이냐?” 내 삶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노가 나를 이끌었고 나는 따라야 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서울 성곽길을 걷고 또 걸었다.

가출 둘째 날 오전 세 시간 정도 걸어 길상사에 닿으니 12시가 넘었다. 화장실에 들러 땀에 전 내복을 갈아입었다. 햇볕 드는 공양간 창가에서 채식 비빔밥 한 그릇을 꼭꼭 씹어 즐겼다. 내 또래 중년 아줌마가 여기저기 많이 보였다. 저들은 무슨 일로 절에 왔을까. 내 나이 만 54세, 결혼 26주년이 지나도록 홀로 여행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가출이었다.

“등산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옷 색깔이 참 곱네요.”

점심 후 절 카페에서 차 한 잔 놓고 앉았는데 누가 말을 걸었다.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마주 앉았다. 아웃도어를 입고 땀에 전 나와 달리 화장한 얼굴의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은 멋쟁이었다.

“감사합니다. 성곽길을 땀 흘려 걸을 땀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멋지네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절에 몇 년을 다녀도 성곽길을 못 걸어봤어요.”

집 나온 지 만 하루가 넘어가니 입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다. 낯선 동무를 거절한 내가 아니었다.

“어머나! 한 번도요? 저랑 이따 같이 가실래요? 오후에도 좀 걸을 수 있는데.”

“정말요? 어휴, 보세요. 산길 걸을 복장이 아니네요. 체력이 좋으신가 봐요!”

“체력요? 길러보려고 이러잖아요. 근데… 혹시 이 근처 따뜻하고 썩 숙소 아는 데 없어요? 제가 가출했거든요. 한옥에서 잤는데 추워서요.”

내쳐 수다 떠는 나를 우아한 벗이 눈을 뚫그랗게 뜨며 바라봤다.

“어머나, 가출이라 그랬어요?”

“네. 가출 선언하고 3박 4일 목표로 나왔어요. 이제 한 밤 잤는데 숙소가 말짱이네요.”

순간 우아한 벋(편의상 ‘우아 씨’라 하겠다)이 내 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에! 너무 부러워요. 나도 가출 한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동설한에 가출한 사람이 부럽다는 우아 씨, 숙소 이야기엔 관심 없어 보였다. 그는 대기업 임원 남편과 남매를 둔 ‘부족함 없는’ 전업주부였다. 남편이 연말 휴가를 몰아 쓰느라 며칠째 집에 있는데 자꾸 부딪쳐서 나와버렸단다.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는 남편을 위해 우아 씨는 삼시 세끼를 차려야 했다. 결혼 22년 차. 그날따라 점심 차리는 게 진저리나게 싫었던단다. 남편은 아내를 애처럼 귀여워하여 애들 키울 땐 어린이날에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단다. 나이 먹을수록 간섭하고 통제하는 남편이 싫어졌다. 답답해서 발길 닿는 대로 나왔는데 오는 게 절이었다. 숨을 좀 돌리더니 우아 씨가 덧붙였다.

“조금 전 남편이 전화로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밥시간인데 당신 어디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래요. 그 소리 듣는데, 아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 끊어버렸어요.”

“우와~ 대박! 남편 장난 아닌데요? 답답하시겠어요.”

내 추임새를 따라 그는 남편 흉을 더 늘어놓더니 다시 함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절에 오니 마음이 좀 가라앉네요. 여기 오니 좋죠?”

“좋죠. 이런 데가 있으니 서울이 참 매력적이죠.”

맞장구를 치고 내가 또 묻고 그가 답했다.

“여기 오면 어떻게 마음이 가라앉아요?”

“절에 오면 제가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죠. 비우면...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엥? 재미있던 이야기가 갑자기 찬물을 맞은 기분이었다. 그냥 있을 내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건지 좀 더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남편은 절대 안 바뀌는 걸 아니까, 결국 내가 맘 비우는 거죠.”

살짝 한숨 섞인 우아 씨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늘 그렇게 하셨어요? 비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니깐요? 비워진 마음 약발은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쏟아지는 내 질문에 우아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또 한숨을 쉬었다.

“바뀔 사람이면 제가 다르게 시도해보죠. 제가 마음 안 비우면 못 사니까. 답이 없는 걸요.”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버렸다.

“아뇨, 잠깐만요! 마음 비우지 마세요! 제발요~.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도 남편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게 답이 되나요? 남편도 맘을 비우든가 같이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혼자 비우고 다시 화나고, 대전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비울 게 있어야 비우죠. 마음 비우지 마요~.”

어쩌나. 우아한 동무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살짝 당황한 나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다.

“어머 죄송해요, 괜한 소리를 했나 봐요. 힘들게 마음 비우시니,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아니에요. ‘언니’라고 부를게요. 언니 말 들으니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아서, 저도 모르겠네요. 눈물이 났나 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살길 바라죠. 싸우기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남편이 화내면 그만이죠. 결국 내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죠.”

오랜 친구처럼 우리는 공감을 주고받았다. 나도 가출한 이유, 암 이야기, 갱년기 이야기에

남편 흥까지 늘어났다. 듣던 우아 씨가 애기했다.

“가출을 허락했으면 너무 좋은 남편 아닌가요?”

“도긴개긴이죠.”

“그래도 그 정도면…”

“겉모양에 속지 말아요. 남성 중심적인 건 똑같으니까요.”

아~ 몸은 비우되 마음은 비우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4. 분노하는 여자 치유하는 여자/김화숙,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나는 분노하는 여자에 꽂히곤 한다. 책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내 삶이 분노하면서 달라졌기 때문이리라. 분노는 나를 치유하고 해방하고 성장시키는 에너지였다.

살면서 분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 걸 본 적 있던가? 화내는 여자치고 욕 안 먹는 경우를 본 적 없었다. 여자의 분노는 ‘죄’와 ‘추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화내지 않고 미소로 조용히 넘어가는 여자에게 칭찬과 존경이 돌아가지 않던가. 그랬다. 그동안 배우고 실천하려 애쓴 ‘여자의 미덕’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말았다. 허울 좋은 껍데기고 개소리였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분노하는 여자의 눈으로 다시 보았다. 김지영에게서 젊은 날의 내가 보였다. 다시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쉽 없이 쏟아졌다. 저 때는 자기 속마음을 e 드러내지 않는 게 좋은 아내, 좋은 연인인 줄 알았더랬지. 세상이 젊은 여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랬으니까. 기대를 저버리면 욕을 먹었으니까. 지영이처럼 ‘다 가진’ 여자가 어찌 화를 내겠는가. 화나게 하는 구조가 보여도, “별 게 다 섭섭해.”하며 넘어가는 게 미덕이었다. 화내지 않는 지영은 결국 해리장애 환자가 되었다.

지영의 엄마에게 눈을 돌려보자. 공무원 남편과 시어머니에 세 아이가 모두 엄마의 돌봄 대상이었다. 손에서 일을 놓은 적 없이 열심히 산 엄마다. 집안을 일으키고 가족 뒷바라지를 훌륭히 해낸 엄마는 중년에도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다. 아빠는 퇴직해서 이제 한가하게 친구 만나며 쉴 수 있지만 엄마의 노동이 끝나기엔 아직 멀어 보인다.

지영의 엄마가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이 있다. 아빠가 아들을 위해 한약을 지어온 날이었다. 아픈 지영이 때문에 눈물 흘리며 누워 있던 엄마가 총알처럼 튀어나온다. 부자 앞에서 한약 상자를 패대기쳐버릴 때, 쓰레기처럼 약봉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진다. 엄마는 지영아~ 오열하고 미친 듯 소리 지른다. “이게 다 뭐라고. 이까짓 게 다 뭐라고!” 한약 봉지로 상징되는 그 무엇, 부서져야 할 공고한 질서와 신념을 향해 엄마는 분노로 ‘죽빵’을 날린다. 영화의 흐름을 바꾸는 분노였다.

화내는 여자는 나쁜 여자?

<82년생 김지영>과 달리 <세자매>의 미옥은 분노하는 젊은 여자다. 미옥네 4남매와 엄마는 아빠한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다. 엄마처럼 저항하지 못하는 큰딸 희숙(김선영), 매사에 완벽하고 반듯해 보이는 기독교인 둘째 미연(문소리), 셋째 미옥(장윤주)은 알코올에 의존하며 수시로 분노하는 글쟁이다. 아버지의 생일 가족 모임에서 미연과 미옥이 폭발하며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아버지는 사과하지 않고 자기 머리를 창에 들이받는다.

세 자매는 정확히 나를 3분할한 모습이었다. 미연이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다. 믿음의 가정, 목사 사모,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던 나다. 암과 함께 나는 딱 희숙으로 살 수도 있었다.(개성과 목소리를 죽이고 남 보기 좋게 살려 했으니까). 미옥이는 극소수 사람들만 아는 내 모습이다. 혈기와 광기를 조신함으로 덮어왔건만, 암과 갱년기로 분노를 터뜨린 걸 보라.

여기에 한 사람 더, 세 자매의 엄마도 내 모습이었다. 엄마는 아버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변호했다. “이제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죽는 거 불라카나!” 아버지 앞에 절절매며 자식들을 더 화나게 했다. 나도 ‘좋은 아내’는 남편의 아바타 같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에게 잘 보이고, 사랑받고, 화목한 가정을 지키려면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솔직한 목소리를 내면, 그가 마음 상할까 봐, 사랑을 잃을까 봐, 그에게 죽자고 맞춰 살았다.

나는 왜 화내는 여자를 나쁜 여자라 여기게 됐을까? 어릴 때 부모가 다투고 불화한 걸 보는 게 너무 싫었다.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조숙한 소녀는 눈치챘다.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내가 받은 상처를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화내지 않는 아내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성경을 잘못 적용한 탓도 있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든가 “노하기를 더디 하라” 또는 “분노하지 말라”라는 구절. 분노는 곧 ‘회개할 죄’였다. 정황과 맥락이 빠진 문자주의적 해석이 한몫했다.

사람이 왜 이유 없이 분노하겠는가. 분노하지 않는 인간이 인간일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치고 배웠음이 드러났다. 정황과 맥락 없는 율법은 사람을 옥죄고 병들게 하는 법. 네다가 내겐 자격지심도 있었다. 내가 아주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자기비하였다. 내 감정을 수용하기보다 부정하는 게 익숙했다. 그러니 갱년기 덕분에,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알고 보니 분노는 나를 이끄는 창조적 힘이였다.

분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영화 <거룩한 분노> 속 여성들의 분노는 달랐다. 지영이 엄마나 세 자매의 분노는 사적 영역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분노란 자식을 위해, 자식 살리고자 하는 엄마에게나 겨우 허용되는 감정이었다. 그러나 로라는 가부장적인 사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질서’에 분노로 도전한다. 남편과 시아버지와 아들들에게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 여성 투표권을 쟁취한다.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라는 책은 여성의 분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파한다. 책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면, “분노와 죄책감은 양립할 수 없다”로 하겠다. 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너무 잘못 배웠다. 나를 분노하게 하는 부조리를 견디는 시시포스였다. 나의 존재를 축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통념에 막혀 있었다. 무력한 인간으로 죽게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서 결국 폭발해준 분노 에너지가 나는 이제 고맙다.

《아름다운 분노》는 단도직입적인 제목의 책이다. 분노함으로써 자신을 바꾸고 세상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다. 분노는 아름답고 분노는 중요한 감정이다. 나는 분노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다. 나로, 더 나답게 살게 되었다. 분노하며 나와 주변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세상을 새롭게 보며 행동하게 됐다. 분노하는 나는 더 멋진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 몸이 더 건강하고 강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분노의 힘이다.

“분노를 표현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여자는 성장한다!”

5. 마이너스 엄마들/ 서한영교, 《두 번째 페미니스트》

애인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멋있는 사람으로 통한다. 할 말은 분명하게 하고, 명쾌한 어조로 복잡한 상황을 단숨에 정리하는 직관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기분을 잡칠 수 있는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재주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다. 게다가 자기 고민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가볍게 거기서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하다.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반응하고, 아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 고민을 많이 한다. 무엇보다 자책이 늘었다. 그런 애인에게 너무 신경쓰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가 기침을 하면 애인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어제 외출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후회한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밥에 들어간 재료를 살살이 훑으며 자신이 뭔가 잘못 조리한 건 아닐까, 먼저 생각한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못하면 애인은 자신이 방 온도를 점검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아이가 쉽게 떼를 쓰기 시작하면 애인은 자신이 계속 오냐오냐 받아줘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늘 자신을 먼저 자책한다. 애인은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 자주 쪼그라든다.

엄마 노릇에 대한 기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엄마들은 쉽게 죄책감에 시달린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되묻고, 주말이면 만사 다 제쳐두고 쉬고 싶은 자신을 두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자책한다. 주변 또래 아이들의 앞선 성장과 발육상태를 보고서 비교하며 비타민을 하나 사서 먹여야 하나 생각하기도 한다. 엄마 노릇이 신성해지고, 엄마 노릇이 전문화되고, 엄마 노릇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미안해한다.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나게 한 것도, 미세먼지 가득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학군이 좋지 못한 지방에 태어나게 한 것도, 끝이 없다. ‘좋은’ 엄마 노릇에 대한 목록은 점차 늘어만 간다.

이에 대해 울리히 벡과 벡-게른샤임은 『사랑은 지독한 혼란: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에서 위험사회 속에서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미니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받는다.”라고 한다. 아이에게 처해질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아이에게 ‘최적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일을 두고 “위대하고 책임 있는 임무”로서의 엄마노릇이 되어버렸다고 말이다. 엄마노릇이라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기준들은 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들은 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면서 아주 안 하기보다는 차라리 너무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배짱 있는 애인과 나조차도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부모노릇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이유이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느끼게 되는 ‘지독한 혼란’의 원인인 것이다. 엄마가 됨과 동시에 시작되는 자책의 알고리즘은 엄마라는 역할에 너무 많은 의무와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끊임없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늘 잘못하고 있다는 후회로 빠지기 쉬워지는 것 같다.

아내가 점점 쪼그라들수록 나는 생각이 많아지는 병에 걸린다. 마이너스가 필요한 건 오히려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요즘 아내가 자주 마이너스로 쪼그라든다.

6. 겸손의 탈/ 김화숙, 《내 몸은 내가 접수한다》

지난번 토론한 책 《모멸감》(김찬호, 문학과지성사, 2014)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책 본문이 아니라 꼭지 시작 부분에 벤자민 팔스의 《미국 흑인사》에서 인용된 작은 글씨 있었죠. “노예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로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몇 문장만 가져와서 함께 읽으며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의 탈을 쓰고 비굴하게 아첨했다. 주인에게 사랑스런 인상을 주도록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완전히 주인에게 의지했다.” 그다음 문장은 이렇습니다. 노예는 “약간 바보인 체”했는데 이걸 그의 “또 다른 생존 방법”이었다고 하네요.

“제게 낯선 단어는 노예의 ‘행궤동 방식’ 또는 ‘생존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나름의 생존 방법이 있잖아요? 살자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죽음이겠구나 판단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존 방법을 구사하나요? 그런데 노예의 생존방법이요, 제겐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상한가요?”

‘노예’를 ‘나’로 바꿔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러므로 나는 겸손의 탈을 쓰고 비굴하게 아첨했다. 주인에게 사랑스런 인상을 주도록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완전히 주인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약간 바보인 체했다. 이것이 나의 또 다른 생존 방법이었다.”

제 태도를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네요. 지난 토론에서 제가 열변을 토하다가 마침내 ‘나’를 넣어 이 부분을 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토론 진행자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거기서 주인은 누구죠?” 좋은 질문 아닌가요? 제가 바로 답했습니다. “가부장제이고 종교권력이며, 제 남편입니다.” 심한가요? 제가 오랫동안 겸손의 탈을 쓰고 살았거든요.

사전적으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노예가 겸손할 게 뭐 있길래요? ‘겸손의 탈’을 썼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겸손의 탈이 뭐가 다르죠? 상대적으로 내세울 게 있는 쪽에 요구되는 게 겸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노예가 아니라 주인에게 겸손이 필요하죠. 그런데 노예에게 겸손을 요구한다? 형용모순이죠.

노예가 자기로 살고 있나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며 부릴 권력이 있나요? 구조적으로 노예가 오만하면 죽음이잖아요. 다 뺏기고 부정당하가 사는 게 노예죠. 그런데 그가 강한 자를 존중하려고 자신을 더 낮춰요. 겸손의 탈입니다. 쫓대 없고 자기가 없는 양, 주인에게 굽히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왜요? 주인 기분 맞추느라, ‘탈’을 쓰는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겸손해 보인다고, 그게 다 겸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황과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예는 겸손한 게 아니라 비굴하게 아첨하는 겁니다. 불의한 구조가 힘 가진 자 중심으로 기울어 있어서, 노예는 원치 않게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런 힘은, 두들겨 패지 않아도 폭력이고 차별이고 억압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 전략이 바로 ‘겸손의 탈’ 아닌가요? 가부장제는 남성이란 권력이, 노예 주인처럼, 여성 위에 있는 구조니까요. 아내는 남편 앞에서 노예가 취한 생존 전략을 씁니다. 남녀 관계에서 여자는 남자 기분을 살피며 비굴하게 아첨하고, 화내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 그를 의지하는 척해야 합니다. 그걸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하니까요. 설마 저만 그랬나요?

그럼 끝으로 ‘노예’를 ‘여자’로 바꿔 인용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러므로 여자는 겸손의 탈을 쓰고 비굴하게 아첨했다. 남자에게 사랑스런 인상을 주도록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취하고 완전히 남자에게 의지했다. 그리고 약간 바보인 체했다. 이것이 여자의 또 다른 생존 방법이었다.” (5분 연설문)

7.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은유, 세바시 강의 2019. 08. 28.

저는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펴낸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고 김동준 군인데요. 특성화고에,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고, 고3 10월에 취업했습니다. CJ 진천 공장, 우리가 먹는 햄이랑 소시지 만드는 육가공 공장인데요, 거기에 취업해서 일했습니다.

동준 군이 학교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직장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주문량이 많아서 야근을 했구요, 신입이라 일이 서툴러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식에 가서는 강요를 좀 당했어요. 술을 마셔라, 담배를 피워라,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춰라, 노래를 불러라, 이런 강요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준 군이 나이 많은 형이었어요. 동준 군을 불러서, 너네가 일을 못 해서 내가 자꾸 위에서 구박을 받는다. 일 좀 똑바로 해라. 구타했습니다. 내가 때린 사실을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인근에 아는 조폭 형들이 아주 많아요. 형들한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동준 군은 굉장히 겁에 질렸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던 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 선생님께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월요일 날 회사로 갈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일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교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준 군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 얼굴을 볼 것이냐, 월요일 날.

두려움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난 제 정신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요. 내일 인사과에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전해질 텐데 그 형의 반응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동준 군은 일요일 밤에 기숙사로 복귀해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선생님께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에 그 문자를 보고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준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니 뒤에는 샘이 있잖아. 그렇게 보냈는데 너무 늦은 문자가 되었습니다. 동준 군은 그전에 출근하는 길에 7:47에 기숙사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동준 군이 졸업식 때 입으려고 사둔 양복과 구두는 유품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뒤로도 이제 현장 실습생의 죽음이 계속됐죠. 제주도 생수 공장에서 일하던 이민호 분 이 기계에 몸이 끼서 숨졌고요. 외식업체 토다원에서 스프 끓이기 업무를 담당하던 김동주 군 역시 몇 달 동안 손에 꼽을 만큼밖에 쉬지 못했다고 해요. 굉장히 힘든 노동에 스프 끓이기 업무를 하다가 화상을 굉장히 많이 입었고 선임들이 괴롭히고 이래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습니다. LG 텔레콤에서 일하던 홍수현 양도 현장 실습생인데도 해지 방어팀에 발령받아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현장 실습생은 아니지만 구이 역에서 안전문 고치다가 숨진 김 군. 태안화력에서 일하다가 역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김용균 씨. 다 특성화고 졸업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사망사고를 통해서만 존재가 드러나죠. 죽어서도 계속 무슨무슨 양 무슨무슨 군으로 불려 나옵니다.

책에 그런 이야기 썼는데요.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면 상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특성화고 다니는 사람, 아 그래 좀 힘든 일을 하지. 안타깝지만 일하다가 죽기도 하지. 좀 불행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특성화고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 걸까.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사회의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

문에 불행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건이었구요.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좀 편견을 없애고 그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불행해도 되는 존재는 없다. 예, 우리가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준 군 이야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는 일하면서 누구나 동준 군 같은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계속 야근해서 지치기도 하고, 상사의 모욕적인 말, 동료와 갈등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기가 굉장히 어렵죠. 남의 돈 버는 게 쉽니, 견드립니다. 월세는 어떻게 할 거야. 핸드폰 요금 내야지, 대출금 갚아야지, 합리화하면서 아픔을 눌러 놓죠. 저도 크면서 엄마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쓰러져도 회사 가서 쓰러져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많이 그렇게 키웠어요. 가진 게 많이 없는 부모, 물려줄 게 많이 없는 부모 입장에서 근면한 몸, 성실한 습관, 힘든 일을 참아내는 인내. 이런 걸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동준 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준 군이 일요일 기숙사로 복귀할 때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어머니 달래서 보냈어요. 괜찮아 월요일 선생님도 올 거도 잘 해결될 거야. 근데 동준 군이 잘못되고 나서 부모님이 엄청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아이를 보내서 아이가 잘못됐다, 라는 후회와 자책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 작업을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응해 주셨어요. 당신의 자식을 구하지 못했지만, 많은 젊은이, 그리고 일이 힘든 사람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으셨대요. 힘들면 회사는 그만둬도 된다. 살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다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준 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이 나를 살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질문 던져 봐야 하고요. 직장을 지키는 것보다는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하잖아요. 꿈도 꾸고 잘 살고 싶어 미래에 무엇이 되겠다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었고요. 사람들은 또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자가 몇 대 맞았다고 죽냐. 그렇게 나약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동준 군 어머니도 직접 그런 말을 듣기도 했구요. 애가 힘들다는데 왜 회사를 보냈냐. 너무 나약하면 살기 힘들다. 근데 이런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여성도 살면서 폭력을 많이 겪죠. 여성은 주로 성폭력을 당하는데, 그런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항상 여성에게 비난이 돌아가요. 그러게 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냐, 왜 엠티를 따라가냐, 노래방에 갔냐, 짧은 치마를 입었냐, 밤늦게 돌아다니냐. 우리가 항상 피해자를 비난하거든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또 이런 폭력적인 문화를 낳고 방조하는 사회구조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입 다물면 조용해지니까, 계속 침묵하죠. 그러니까 폭력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력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폭력은 피해자의 침묵을 먹고 자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페미니즘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약자들의 아픔이 눈에 잘 들어오고, 이게 여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빠는 일하고 엄마는 살림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남자가 일하면 가정의 생계 활동이죠. 근데 여성이 일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 학원비 벌러 나왔다, 반찬값 벌러 나왔다고 말해요. 똑같이 일해도 남성만큼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임금 격차가 60%가 괜히 나는 게 아니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뭇을 해도 나이 어리니까, 용돈 별로 나왔다, 핸드폰 요금 내려 나왔다, 쉽게 치부합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라서 글을 쓴 게 아니라 페미니즘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서 점점 더 글을 쓰

면서 페미니스트가 되어 갔다,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게 모호하잖아요. 이건 저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요. 저한테 인간답게 산다는 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차별을 겪거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건 부당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말하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 말하려다 보면 눈물부터 나거든요. 뭐가 너무 복받치면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의견을 굉장히 정확하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저한테는. 글쓰기가 또 파급력이 있어요. 글을 써서 공적인 매체나 또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공감해 주죠.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가 이것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미투가 일어나서 우리가 폭력을 말하게 됐을 때 성폭력이나 많은 폭력이 줄어들 수 있었죠. 성폭력이 줄어들면 직장 내 폭력도 줄어들고 군대 내 폭력도 줄어들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폭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말하고 글을 써야 하는 게 아닐까.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됐잖아요. 피해자가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한 대학생이 리뷰를 썼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 공부해야 사람 대접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갔대요. 이 책을 보니까 내 또래 아이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다. 저는 그 리뷰를 보면서 그 엄마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해. 안전하게 살려면 힘을 키워. 세월호 사건 후 엄마들이 수영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근데 세월호 희생자 중에 이름도 김수영인 선생님이 있는데 정말 수영 잘하셨거든요. 수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능력을 키워서 헤쳐 나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민호 아버지도 굉장히 자책하셨어요. 민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특성화고만 가지 않았다면. 무능한 아빠 내 잘못이다. 막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도,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디서 일해도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일하는데 일하다가 죽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 특성화고 보낼 거 아니야. 나는 공장에서 일할 일 없어, 라고 외면하지 말고 좀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 좋겠어요. 알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아이. 그건 자기 내면에 있는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좀 들여다보자고요.

살면서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확률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좀 많이 낮아요. 우리가 폭력의 목격자가 될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침묵하지 말고 간섭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라고요. 제가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 남의 고통을 알아보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글로 쓰는 페미니스트가 많아질 때 저는 세상은 분명 더 나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에게 편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로, 지하철 승강기도 원래는 휠체어 타거나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비장애인들도 깎스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또 유아차를 끌 때 이용하잖아요. 아프고 약하고 섬세한 존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은 분명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 연설문)